

“엄마의 마음 갖는다면 모두가 치유 상담가”

광주 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강연…마인드 프리즘 정혜신 박사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을 믿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분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을 한번 눈 앞에 그려 보세요. 당신을 믿고 사랑해줄 ‘엄마’ 같은 사람이 있고, 그가 기억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치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치유의 인문학’ 네 번째 강의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은 심리치유 전문기업인 ‘마인드프리즘’ 대표이자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여·50) 박사가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라는 주제로 300여 명 청중 앞에 섰다.

‘거리의 의사’를 지향한다는 정 대표는 최근 서울 시민 1000만을 대상으로 한 치유릴레이를 시작했다. 모든 서울시민을 치유상담하려면 전문가 수백명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치유릴레이에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상담전문가도 없다. 치유를 받는 이가 곧 상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진행 중인 치유릴레이에는 전문가가 일반인에게 조언하는 수직적인 상담이 아니라, 시민이 시민을 치유하는 수평적 형태로 진행돼요. 1차적으로 지난 6월 24명으로 시작했고, 이들이 다시 또 다른 시민들을 치유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이죠. 치유상담을 하려면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치유의 핵심은 ‘엄마상’이에요.”

정 대표가 말하는 엄마성은 자신을 낳아준 생물학적인 엄마를 뜻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찾아가 상처 받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엄마’이자 ‘엄마상’이다. 그녀는 치유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특별한 지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성을 가진 존재를 함께 찾으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엄마처럼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마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상원들에게는 엄마 같은 포근한 존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삶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10만 명당 자살률은 12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33명이다. 심지어 65세 이상 인구 자살률은 82명에 이른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사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 받아야 해요. 그런데 사회가 인간을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부모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동료가 죽었

는데도 일만 시키는 뉴스를 접하면 과연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지 의심하게 돼요.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엄마가 없는 사회. 우리 모두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멈춰서 돌아가 봐야 할 때가 된 거 같아요.”

청중들은 은화한 미소로 무대에 선 정 대표의 목소리에 감동내내 집중했다. 이윽고 강연이 끝나자 커다란 박수를 보냈다. 수십 여명은 감사인사와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다.

“너무 고맙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네요. 꼭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5·18 유가족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정혜신 대표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치유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연임



제44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서 박종률 후보(현 기자협회장)가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8574명 중 4514명이 참여한 선거(투표율 52.6%)에서 박 후보는 1787표(득표율 39.6%)를 얻었다.

박 당선자는 1992년 CBS에 입사해 CBS 아침종합뉴스 앵커, 위성언론과 등을 지냈으며 제43대 기자협회장, 국제기자연맹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정현)는 지난 10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돋우기 위해 성금 18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영광농협 ‘다문화 가족과 함께 사랑의 김치’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은 최근 영광군 통합 RPC광장에서 지역 봉사단체인 농촌사랑봉사단과 함께 ‘다문화 가족과 함께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펼쳤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하이트진로 봉사단 운영 사회환원 사업 앞장

성동욱 광주지점장 ‘광주시장상’

“저희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시니 덕분에 이런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로 봉사단을 만들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광주지점은 성동욱(48·원쪽) 지점장이 지난 10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 지점장은 그동안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전국 최초로 ‘하이트진로 봉사단’을 조직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하이트진로 광주지점은 ‘정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광주에서 판매되는 ‘닭백주’, ‘찰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3억 원 달성을 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가 주관한 ‘북녘어린이 겨울용품보내기’ 등을 펼치고 있다.

본보 유제관·이종행 기자 ‘올해의 기자상’



광주일보 편집부 유제관 기자와 사회부 이종행 기자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정영팔) 2013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제관 기자는 ‘흑비의 습격 여수의 눈물’(본보 6월13일자 6면)로 신문통신 편집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종행 기자는 ‘영구임대 주민이 기록한 10개월간 사건일기’(본보 3월11일자 6면)로 취재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기자상 대상에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송정현·맹대환·구용희 기자의 ‘희대 사기극 680억 대 전기자동차’가 뽑혔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3 기자상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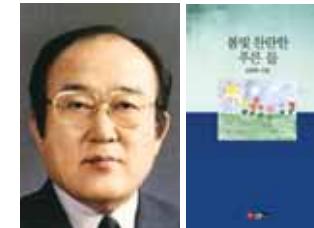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성 지점장은 “2014년에도 ‘광주사랑기금’, ‘하이트진로 봉사단’ 사회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주류 문화를 확립하고 지역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심정욱 전남대 명예교수 첫 시집 출간



수학을 전공한 이학박사인 심정욱(전남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시인이 첫 시집을 내 화제다.

‘봄빛 찬란한 푸른 틀’(한림간)을펴낸 심 교수는 1960년 전남대 학창 시절 대학 문학동인 ‘등’에서 손광은·김규화 시

인들과 활동을 할 만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쳐온 심 교수에게는 늘 뜯어 피운 문학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나마 문학의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시집 출판 배경을 밝혔다.

모두 10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는 부모님에 대한 아름한 기억, 자연에 대한 심상, 삶에 대한 편린 등이 잔잔한 시어로 표현돼 있다. 발문을 쓴 손광은(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시인은 “시인이 응송깊은 감성을 키워오다가 슬그머니 펴낸 작품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며 의미를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전남우정청-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 협약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왼쪽)과 2014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종식·오른쪽)는 지난 10일 완도군청에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기원과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지방우정청과 완도군은 국내 해조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열리는 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와 완도 특산물의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음천초교 자매결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적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10일 강진 음천초등학교(교장 임금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인사

◆대법원

〈승진〉 ◇사법보좌관(서기관) ▲광주지법 전계수 형남곤
〈전보〉 ◇서기관 ▲광주지법 전웅기 노기형 ▲전주지법 전재권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영자씨 차남 이주화군 김재현(전 보성부군수·신민정씨 장녀 형진양=14일(토) 낮 12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 031-738-4114.

▲김향근(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박병숙씨 장남 남우(삼일학교법인)군 정일설·권영희씨 처녀 호연(삼일학교법인)양=14일(토) 낮 12시 40분 흘리데이인광주호텔 라벤더홀 2층.

▲공상순(전 여수시청 흥보과장)·박인숙(서광교회 권사)씨 장남 태원(LG화학)군 김선명·장영희씨 장녀 진순양=14일(토) 낮 12시 30분 여수소라죽림 유개슬호텔 웨딩홀 1층 061-808-5040.

동창동문회

▲재광 전주고·복중 정기총회 및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진남종회(회장 강원구) 송년회 및 명사초정 간담회=14일(토) 오후 4시 진주강씨 종회사무실 062-228-3368, 010-2378-0070.

▲향암 박씨 광주·전남 종친회 정기총회=17일(화) 오전 11시 북구 북동신협 2층 종친회 사무실 010-604-2182(박해숙 총무).

▲북성중 제14회 동창회(회장 김승준) 월례회=14일(토) 오후 6시 목포대회관(교대와 백립약구 사이) 062-228-5647.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7일(화) 오후 6시 30분 수림식당 062-223-0028.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한마당 행사=18일(수) 오후 6시 라마다호텔 5층 062-228-0197~8(총동창회 사무처).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암코율, 혈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임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임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임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기류교육 기관으로 협력 인정, 무료로 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시민 학생의 ‘인성학방’과 ‘성찰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무관·누구나 수강 가능 무료) 010-3625-5433.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010-225-6500, 011-610-5575.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010-225-6500, 011-610-5575.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010-225-6500, 011-610-5575.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010-225-6500, 011-610-5575.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